

# 광주·전라 96% “반드시 투표하겠다”… 전국 최고치

## 여론조사 질문지

문 1) 오는 6월 3일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. ○○님께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 투표하실 건가요, 투표하지 않으실 건가요? ‘반드시 할 것이다’, ‘아마 할 것 같다’, ‘아마 하지 않을 것 같다’, ‘투표하지 않겠다’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.

문 2) ○○님께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다음 후보 중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? 기호순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.

문 3) ○○님께서 [문2] 응답 후보를 투표일까지 계속 지지할 것 같습니까, 아니면 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 지지로 바꿀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?

문 4~5) 이번에는 차기 대선에서 양자 대결을 가정해 여쭙겠습니다. [○○○, □□□] 두 후보의 맞대결로 치러진다면,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더 좋다고 보십니까?

문 6) ○○님의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,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?

문 7) ○○님께서 대선후보 TV 토론회를 시청했거나, 뉴스 또는 인터넷을 통해 관련 내용을 본 적 있으십니까?

문 8) ○○님의 지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토론회를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후보는 누구입니까?

문 9) 대선후보 TV 토론회가 ○○님의 후보 선택에 다음 중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?

문 10)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차기 대통령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?

문 11) ○○님께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? 보기를 순환하여 불러드리겠습니다.



인천·경기·강원 91% 서울 90% 높아 부산·울산·경남 88% 대구·경북 85% 70세 이상 97%... 18~29세 84% 진보층 95%·보수 90%·중도 86%

6월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, 광주·전남 등 호남 지역에서 ‘반드시 투표하겠다’고 밝힌 응답 비율이 96%에 달했다.

전남일보 등 대한민국의방신문협의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0~21일 전국 남녀 만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(95% 신뢰수준 표본오차 ±3.1%포인트)에 따르면 광주·전라 지역에서 ‘반드시 투표하겠다’는 의사를 밝힌 응답자가 96%를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. 이어 ‘아마 할 것 같다’ 2%, ‘아마 하지 않을 것 같다’ 2%, ‘모름·응답거절’ 1%, ‘투표하지 않겠다’ 0%, 순이었다.

전국 전체로는 ‘반드시 할 것이다’고 밝힌 응답자는 90%로 조사됐다. 이어 ‘아마 할 것 같다’ 5%, ‘아마 하지 않을 것 같다’ 2%, ‘투표하지 않겠다’ 2%, ‘모름·응답거절’ 1% 순이었다.

## 대선 투표 의향 (단위:%)



지역별로 ‘반드시 투표하겠다’는 응답 비율은 광주·전라 96%에 이어 인천·경기와 강원 각 91%, 서울 90% 등의 순으로 높았다. 이어 부산·울산·경남 88%, 대전·세종·충청 86%, 대구·경북 85%, 제주 83%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.

더불어민주당 지지층 가운데 ‘반드시 투표하겠다’는 의사를 밝힌 응답자는 96%였으며,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97%가 ‘반드시 투표하겠다’고 답했다. 국민의힘 90%, 개혁신당 85%, 그의 정당 86%의 지지자들이 ‘반드시 투표하겠다’고 응답했다. 무당층에선 72%가 ‘반드시 투표권을 행사하겠다’고 답했고, 16%가 ‘아마 할 것 같다’고 했다.

연령별로는 70세 이상(97%)이 가장 높았다. 이어 40대 91%, 30대·50대·60대 각 89%, 18~29세 84% 순이었다. 또, 18~29세는 ‘아마 할 것 같다’라고 답한 응답

률이 11%였다. 정치 이념 성향에서는 보수층의 90%, 중도층의 86%, 진보층의 95%가 ‘반드시 투표권을 행사하겠다’고 밝혔다.

또 정치 성향이 없거나 잘 모른다고 밝힌 응답자의 91%가 투표 의사를 밝히는 등 대선 투표 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응답이 많았다.

한편 전남일보 등 대한민국의방신문협의회는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0~21일 이틀간 만18세 이상 전국 유권자 1007명을 대상으로 대선 여론 조사를 실시했다. 표본은 무선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(CATI) 방식으로 조사했다. 표본 오차는 95% 신뢰수준에 ±3.1%포인트, 응답률은 15.8%였다.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. **대신협공동취재단**

# 광주·전라 지역 유권자 93% “지지후보, 투표일까지 지지”

지지 의향 “바꿀 수 있다” 11% 이재명 지지자 95% “계속 지지”

6·3 대선 후보 지지 의향 여론조사 결과, 광주·전남 등 호남지역에서 ‘투표일까지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’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 90%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전남일보 등 대한민국의방신문협의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20~21일 전국 남녀 만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, ‘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오는 투표일까지 계속 지지할 것 같다’는 질문에 응답자의 88%가 ‘계속 지지할 것 같다’고 답했다.

반면 ‘다른 사람 지지로 바꿀 수도 있다’는 응답은 11%, ‘모름/응답거절’은 1%로 집계됐다.

지역별로 ‘계속 지지할 것 같다’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광주·전라가 93%로 가장 높았고, 인천·경기와 제주(각 90%), 강원(89%), 부산·울산·경남(87%), 서울(86%), 대구·경북(85%), 대전·세종·충청(84%) 순으로 나타났다.

지지 후보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자의 95%가 ‘계속 지지할 것 같다’고 응답해 가장 높았다.

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89%,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60%로 각각 집계됐다.

기타 후보 지지층의 경우 ‘계속 지지할 것 같다’는 응답이 20%였고, ‘다른 사람 지지로 바꿀 수도 있다’는 응답은 70%에 달했다.

지지 정당별로도 민주당(95%)과 조국혁신당(94%) 지지층에서 ‘계속 지지할 것 같다’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, 국민의힘은 89%, 개혁신당은 69%였다. 정당 지지 여부가 없는 무당층은 65%였다.

정치 성향별로는 자신을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의 95%가, 보수 성향 응답자의 89%가 ‘지지 후보를 바꾸지 않겠다’고 답했다. 중도층도 81%가 ‘계속 지지할 것 같다’고 응답했으며,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은 17%에 그쳤다.

연령별로는 50대 응답자의 지지 지속 의향이 95%로 가장 높았다. 40대 이상부터 70세 이상까지는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는 의향이 90%를 상회했다. 반면 18~29세는 73%로 가장 낮았다.

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15.8%였다. 표본오차는 95% 신뢰수준에 ±3.1%포인트다.

여론조사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.

대신협공동취재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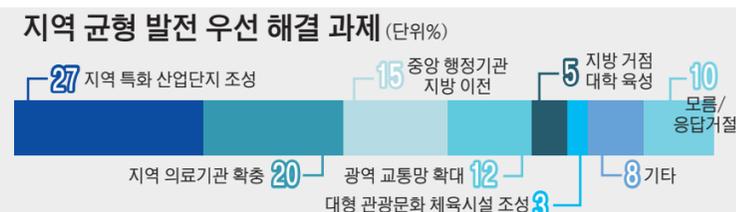
광주 이주여성 투표 참여 캠페인 강기정 광주시장이 22일 광산구 가족센터에서 열린 ‘광주 이주여성 투표 참여 캠페인’에서 박병규 광산구청장과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독려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 **광주시 제공**

# 차기 대통령 최우선 과제 ‘지역 특화 산단 조성’

광주·전라지역 응답자 27% 꼽아 의료기관 확충·행정기관 이전 순

6·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광주·전남 유권자들은 차기 대통령의 해결 과제로 ‘지역 특화 산업단지 조성’을 꼽았다.

전남일보 등 대한민국의방신문협의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20~21일 전국 남녀 만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(95% 신뢰수준 표본오차 ±3.1%포인트)에 따르면 ‘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차기 대통령의 우선 해결 과제’를 묻는 질문에 광주·전라 지역 응답자 27%가 ‘지역 특화 산업단지 조성’이라고 답했다. 이어 ‘지역 의료기관 확충’ 22%, ‘중앙 행정기관 지방이전’ 12%, ‘광역 교통망 확대’ 10%, ‘대형 관광·문화·체육시설



조성’ 3%, ‘지방 거점 대학 육성’ 2%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.

전국 전체 응답자 역시 27%가 ‘지역 특화 산업단지 조성’을 차기 대통령의 우선 과제로 선택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. 이어 ‘지역 의료기관 확충’ 20%, ‘중앙행정기관 지방이전’ 15%, ‘광역 교통망 확대’ 12%, ‘지방 거점 대학 육성’ 5%, ‘대형 관광·문화·체육시설 조성’ 3% 순으로 나타났다.

지역별로는 대구·경북(36%)과 부산·

울산·경남(35%)에서 산업단지 조성을 우선 과제로 선택한 비율이 높았으며, 제주에서는 ‘지역 의료기관 확충’이 42%로 가장 높았다.

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15.8%였다. 여론조사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.

대신협공동취재단

**‘지역신문발전기금’ 호남 유일 20년 연속 선정**  
신뢰할 수 있는 신문 전남일보